

획기적으로 장악하지 못하고 있다. 모종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지금부터 50년 뒤에는 미국교회도 지금의 우리 영국교회처럼 비고 말 것이다. 내가 미국 목사라면 교회 바깥에 있는 자들에게 눈을 돌리기 보다는 내 모든 시간을 바쳐 이미 교회 회원들인 자들을 회개케 하고 영적 깊이를 더 하게 하겠다.”

한국교회는 영국교회나 미국교회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한국교회와 목사가 성경 말씀을 붙들면서 성령의 도움을 간구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가 꼭 차는 축복을 계속 주실 것이다.

한국교회의 성장에 관한 개혁신학적 고찰

-성장둔화에 대한 요인분석과 내실적 성장을 위한 소고-

김 영 한*

1. 서론

최근 ‘한국교회 성장의 둔화’라는 말이 자주 들린다. 실로 이제는 개척교회 하기가 어렵고 기존교회 성장의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 해방 이후 매 10년마다 배로 증가하여 지금까지 교회사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인 한국교회 성장이 둔화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한국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 70년대 후반과 80년대 초반의 한국교회의 급속한 성

* 서울대학교(B.A.),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Ph.D.), 독일 마이부르크 대학 수학,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 신학박사(Th.D.), 숭실대학교 교수 및 한국기독교문화연구원 교수(현)

장은 한국사회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사회변화에 따른 정치적 불안과 사회적 정체성 상실과 경제적 소외감에서 온 교회 외적 요소와 영적 구원에 주력한 교회의 내적 요소가 잘 조화되어 이루어진 기회였다. 그러나 한국사회가 80년 후반 정치적 민주화가 진행되고 경제적 부의 축적이 이루어진 후 여가산업이 발달하면서 한국사회도 점차 서구사회처럼 종교적 추구보다는 향락시설을 통하여 욕구를 발산시키고 심리적 갈등을 해소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교회도 이러한 시류(時流)에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러나 그 동안 놀라운 성장을 한 한국교회는 이러한 성장을 내실적 성장으로 연결시키지 않고 양적 팽창에 머물렀다. 최근에는 교회성장보다는 교인들이 한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이동하는 현상도 많이 있다고 한다. 지금까지 출석하던 교회에서 신앙적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교인들이 '이름난' 교회로 옮기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한다. 그리하여 도시 안에서도 대형 교회는 더욱 커지고 그 주변의 작은 교회는 도태되어 흡수된다. 이와 더불어 도시교회의 대형화 속에서 농어촌 교회는 아직도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외적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요인의 변화가 교회성장 침체의 본질이 아니다. 문제는 한국교회 자체의 자기 모순과 정체성 상실의 위기에 있다. 우리는 이러한 성장둔화 현상을 잘 분석해 보고 앞으로 한국교회의 성장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하겠다.

2. 한국교회 성장의 둔화추세

기독교교문사가 출판한 1993년 「기독교대연감」에 의하면 1990년에는 개신교 신자수는 11,427,485명으로 연평균 10.8% 성장하였다. 그러나 1991년에는 12,091,837명으로 연평균 5.8%로, 1992년에는 12,571,062명으로 연평균 4.0%로 성장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93년에는 3%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장 통합은 93년말 현재 교회수 5천 330개, 신자수 210만 1천명으로 전년말에 비해 교회는 120개소(2.3%), 신자수는 5만 2천명(2.5%) 증가했다. 예장 합동은 93년말 현재 교회 5천 447개, 신자수 215만 8천명으로 1년 전에 비하여 교회 2백 87개소(5.5%)가 늘었고 신자수는 1만 1천명(0.5%) 증가했다. 예장 고신은 93년말 현재 교회 1천 319개, 신자수 37만 3천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교회는 41개소(3.2%), 신자수는 1만 1천여명(3.0%)이 증가했다. 한편 기독교장로회는 93년말 교회 1천 379개, 신자수 34만 5천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교회는 27개소(1.9%), 신자수는 1만 1천명(3.2%)이 증가했다.¹⁾ 감리교도 94년 4월 통계에 의하면 교회 4천 114개, 신자수 127만 7천명으로 91년과 비교해 볼 때 교회 3천 817개, 신자수 118만 3천여명으로 3년 동안 교회수가 297개, 신자수는 9만 4천여명 성장으로 타교단과 별차이가 없다.²⁾

이러한 통계는 해방 이후 1980년대에 이르는 괄목할 만한 성장에 비하면 성장의 둔화현상이다. 1945년(382,800명)에서 1955년(1,000,482명) 그리고 1965년(2,255,193명)에 이르는 기간동안 근 10년마다 교인수가 배가 되었다. 1967년(2,899,108명)에서 1979년(5,986,609명) 이르는 기간 근 2배로 증가했다. 그리고 1980년에서부터 1990년까지

10년 동안 근 2배로 증가했다. 그리하여 한국교회의 성장은 존 본(John N. Vaughan)이 쓴 「세계의 최대 이십대 교회」(*The World's 20 Largest Churches*)는 책자에 소개된 이십대 교회 중 한국교회가 다섯개나 포함되어 있다. 그리하여 한국교회의 성장은 교회성장학자나 선교학자들에 의해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³⁾

이러한 과거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초의 성장률에 비하면 최근 90년대에 들어와 한국교회의 성장이 둔화된 것을 말할 수 있다. 60년대 16%라는 폭발적 성장에 이어, 70년대 8%, 80년대 7%라는 비교적 높은 성장에 비해 90년대에 들어와 3%라는 성장의 둔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⁴⁾

성장의 둔화란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종래의 10% 성장률에서 성장률이 4%~5%로 둔화되었다는 것이다.

3. 성장둔화 요인들

1) 교회내적 요인들

첫째, 내실없는 양적성장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교회성장이 신학적으로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실적 성장에 대한 신학적 연구 없이 하나의 숫적인 놀이가 되어 버렸다. 그리하여 교회성장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하는 데 실패하였다. 성장 자체가 교회의 궁극적 목적이 되어 버렸다. 그리고 성장이 교회당의 건물 및 부속시설의 물리적 확장에 집중적으로 투자되었다. 그리고 교회 시설이 사회적으로 개방 운용되지 않았다. 교인들의 양육 프로그램

이 결여되어 있으며 교사 및 중간지도자들이 결여되고 있다. 양적 성장에 치우친 나머지 총동원 전도는 신자수 불리기, 교인수 채우기에 치우치고 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웃 교회들과 치열한 경쟁을 하여 다른 교단과 교회에 대한 비방을 서슴치 않고 있으며 신앙 공동체로서의 품위를 떨어뜨리고 있다. 이 가운데 한 신자가 여러 교회에 등록이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교적부에 등록된 것만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신자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초신자들은 양육 프로그램이 없으므로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의 일원이 되지 못한다. 이들은 기독교로서 직장과 사회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훈련받지 못한다. 신자들의 질이 떨어지므로 사회적으로 본이 되지 못한다. 이러한 신자들은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이다. 여기서 더 이상 신자 수의 증가는 어렵게 된 것이다.

둘째, 일부 목회자는 교회의 대형화 속에서 교회를 진지한 말씀의 연구와 기도가 결여된 하나의 종교적 기업식으로 운영한다. 교회의 각종 프로그램은 건물의 대형화, 고급화, 사치화 등으로 짜여진다. 재래식 시장보다는 현대식 백화점에 진열된 상품이 잘 팔리듯이 더 많은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교회의 외모와 치장, 성가대의 진열성 등에 치중한다. 목회자는 그가 제공하는 교회의 각종 프로그램과 성경공부에서 외국에서 베스트셀러를 번역하여 그대로 교인들에게 소개하는 정보의 전달자로 변모하고 있다. 목회자들이 사용하는 각종 교육의 자료는 자신이 깊이 그것과 씨름하고 연구하여 자기의 것으로 은혜를 받은 자료이기 보다는 일반적으로 인기있는 교재

가운데 채택된 것이다. 연구 없이 교인들에게 그대로 전달함으로써 목회자가 가져야 할 영적 통찰력과 은혜의 감동이 결여되는 경우가 많다. 목회자 자신은 안일한 성경연구로 인해 그 교계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자신 속에 은혜의 말씀으로 수용되는 친숙화의 과정없이 그대로 교인들에게 전달한다. 그러므로 목회자 자신은 하나님 말씀의 대리자이기 보다는 하나의 종교적 정보전달자가 되어 버린다.⁹⁾

설교집의 출판이 많아지면서 설교의 준비도 더 이상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과 기도의 무릎에서 영적으로 준비된 것이 아니라 남의 설교를 그대로 모방하는 정보의 전달자가 되어 버리고 있다. 심지어는 그대로 표절하는 바람에 문제가 제기되는 교회도 적지 않다. 이러한 기업식 교회 운영 속에서 목회자의 자기 정비는 결여되고 목회자로서의 영적 권위와 자질의 개발이 결여되고 있다. 영적 권위와 헌신적 희생과 도덕적 엄격성과 정직성과 청빈성이 부재하고 있다. 설교의 말씀대로 실천을 보여주어야 할 목회자가 교회 운영과 사생활에서 양식에 벗어난 행동을 함으로써 교인들과 일반 사회인들에게 목회자의 품위와 인격을 떨어뜨리고 있다.

셋째,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과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에 관한 하나님 말씀의 원리적 선포가 결여되고 있다. 십자가가 없는 각종 인본주의적 설교와 각종 목회 프로그램은 목회 현장의 질적 저하를 초래했다. 설교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죄, 심판, 회개, 결단, 용서, 축복, 헌신이어야 한다. 한국의 강단은 용서와 위로와 축복이 주제가 되어 있고 죄에 대한 지적과 심판의

경고와 결단과 헌신에 대한 설교가 결핍되어 있다. 대부분의 설교가 현세적 성공과 축복, 이것을 위한 긍정적이고 적극적 사고를 역설하고 있다. 그리하여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에 연결해서 현실의 고통과 좌절과 실패를 깊이 반성하는 십자가의 도에 대한 설교가 빈곤하고 있다. 기본설교와 적극적인 사고방식의 설교는 사람들에게 일시적인 위로와 용기를 줄 수는 있다. 그것이 전도의 방편이 될 수는 있다. 그러나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로 단순히 복받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와 이웃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 70년대 후반과 80년대 초 사회적 상황이 불안정할 때 교회의 위로와 성공을 위한 설교는 많은 사람들에게 비전을 주었다. 그러나 그것이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려주는 것은 아니다. 80년 후반부터 우리의 사회적 경제적 여건이 개선되어 사회적 불안의 요소가 많이 제거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복음은 더 이상 큰 영향을 주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넷째, 교회의 대형화 속에서 한국교회는 인격 공동체의 성격에서 변형하여 은둔 공동체로 변모하고 있다. 본래 감리교와 장로교는 교구제도적인 교회로 발전했다. 그런데 6·25동란으로 인해 월남한 북한 신자들의 유입과 산업화에 따른 인구의 대도시 집중화로 인하여 교구중심적 제도가 깨뜨러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감리교와 장로교는 회중적인 개교회주의로 변모하게 되었다.¹⁰⁾ 또한 교인들 가운데 자기 취향에 맞는 설교자를 찾아 이동하는 자들이 많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그 결과 많은 대형교회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

러한 교회는 더 이상 사랑방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의 은의 공동체이다. 신자들이 서로 알아보고 문안하는 인격 공동체가 아니다. 그리하여 군중 속에 파묻혀 아무런 감시나 간섭을 받지 않는 자유로운 개인으로 신앙생활하기를 좋아하는 방랑교인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그리하여 70년대 80년대에 사회적으로 소속감을 상실한 농촌이나 타지방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에서 옛처럼 사랑방 공동체를 발견하지 못한다. 특히 대형교회는 고향마을에서처럼 따뜻한 소속감을 느끼기에 어려운 정신적 환경이 되어 버린 것이다.

다섯째, 교역자들의 대도시 집중화에 따른 대도시 교회 간의 생존경쟁과 농어촌 교회의 폐쇄현상이다. 서울 부근의 도시인 분당, 일산 등 신도시에서 설립되는 교회는 그곳의 불신자들을 전도하기 보다는 이사온 기존 타교회 교인들을 자기 교인으로 영입하고 있다. 때문에 한국교회 전체 교인수의 증가는 없으며 오히려 이러한 신자들이 이중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적지않다. 그리하여 한국교회의 신자 통계는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대도시 교회의 대형화와 더불어 이에 반비례하여 농어촌 교회의 쇠퇴화이다. 이것은 농촌 교인들의 대도시 이동 현상과 같이 생각될 수 있다. 경제적 이유로 농촌 인구들이 대거 도회지로 유입되고 농촌 공동화(空洞化)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농어촌 벽지 교회는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고 영세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농어촌 교회의 경우 아직도 자립하지 못하는 영세교회가 너무나도 많다. 그리하여 담임 교역자를 제대로 모시지 못하는 교회가 상당

수이다. 아직도 많은 농촌의 미자립 교회는 목사를 모시지 못하고 전도사만 모시고 있는 교회가 많다. 그 교회에서 시무한 전도사가 목사 안수를 받으면 경제적인 요인 때문에 목사를 청빙하는 다른 교회로 옮겨 간다. 그러니 그 교회는 항상 목사가 되기 위해 거처가는 정거장이 되어 버린다. 그러니까 농어촌 교회는 폐쇄되어 정상적인 발전을 하지 못하고 있다.

여섯째, 교회의 신분 계층화에 따른 교인의 고령화 현상과 젊은 세대의 교회 이탈 현상이다. 교회가 성장함과 더불어 한국교회 내 목사나 장로는 상위 계층을 형성하게 되었다. 미국이나 독일 등 서구 기독교 나라에서는 목사는 종신직이나 장로는 윤번제이며 종신제가 아니다.

한국교회 헌법에도 명시되었으나 장로직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종신제로 토착화되었다.⁷⁾ ‘장로’란 교회에서 하나의 계층적 언어가 되었고 본래 장로제도가 없던 감리교도 장로제도를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장로란 호칭은 일반 사회에도 통용되기에 이르렀다. 연로한 부인 집사에게 권사란 직책을 주어 승격시키는 것도 이러한 계층의식에 입각한 것이다. 이러한 제도는 하나의 기능적 직책이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가 하나의 교회내 신분화 내지 계층화로 변질되고 있다. 신자들의 연령이 점차 고령화되고 있으며 대학생 등 젊은이들 신자 증가가 둔화되고 있다. 한국사회에 기독교 신앙이 3대에 걸쳐 전승되면서 교회는 하나의 계층을 이루게 되었다. 그리고 노년층이 교회에서 많아지면서 젊은 세대들은 교회에서

이탈하고 있다. 도시교회가 중산층화되면서 도시 빈민지역과 공단 지역은 교회선교의 변두리로 밀려나고 있다. 이러한 교회의 노년화와 계층화는 도시 빈민과 도시 근로자들 같은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은 가정들이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어려워지게 되는 현상으로 나아가고 있다. 교회에 대한 기독교의 태도는 한국교회가 초대시절에 보여준 사민평등사상에서 빛나간 의식이다. 무종교인들의 기독교 선호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80년대 초반 하더라도 학생층의 기독교 선호도는 타종교에 비해 월등했으나 90년대 들어와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그것은 신군부의 등장과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무력진압을 통한 제5공화국의 등장과 더불어 정권에 의한 사회적 인권탄압과 독재적 권력유지에 대하여 한국보수교회가 인권침해를 당한 자들의 권익과 억울함을 대변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교회들의 전반적인 사회선교 활동이 적극적이지 않고 교회왕국 지향적이며 교회 분열과 분쟁이 잦고 시한부 종말론을 비롯하여 대사회적인 병리현상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위신이 크게 추락되었다.⁸⁾

일곱째, 불건전한 기도원과 은사운동으로 인한 건전한 영성운동의 쇠퇴이다. 기도원이 교회의 영적성장에 기여한 것은 평가해야 하나 기도원이 범람하면서 신학적으로 정리되지 못한 기도원들이 생겨났다. 은사운동도 성령의 현재적 사역을 증언하는 점에서는 교회의 영성형성에 기여했으나 은사운동이 영적 회심과 성결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점을 두기보다는 방언과 병의 치유 등 감각적 경험과 현세적 안녕과 복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다.

기도원과 은사운동이 대형화되면서 상업주의화되는 경향으로 변모되어 갔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증언, 주님을 날마다 따르는 삶, 성결을 지향하는 성화의 삶이 중심이 되지 않고 은사자의 능력과 치유의 기적을 더 강조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이러한 기도원과 은사운동에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기복신앙이 충족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올바른 예배와 윤리적인 삶에는 무관심하게 되었다. 사회적 책임의식의 결여, 사랑과 정의에 대한 의식의 결여는 기도원과 은사운동의 각종 비리로 나타났다. 그리하여 불건전한 기도원과 은사운동에 대한 폭로성 기사와 방송들이 일간신문과 텔레비전을 통하여 대대적으로 방영되면서 그 사회적 위상을 떨어뜨렸다. 그것은 교회 성장에 기초적 활력을 제공해온 공급원의 쇠퇴를 의미하는 것이다.

여덟째, 무인가 신학교 난립으로 인한 목회자 및 신학생들의 자질결핍이다. 1972년 전국신학대학협의회(KAATS)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신학교가 80개가 넘었다. 1980년 국제종교문제연구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인가, 무인가 신학교 수가 도합 274개에 이르렀다. 1981년 6월 마침내 정부가 단속에 나서서 117개 무인가 신학교 중 저질의 110개교는 폐교 조치하고 나머지 7개교는 자격을 인정해 주었다.⁹⁾

1991년 기준으로 교육부로부터 인가받은 신학교는 50개요, 무인가 신학교는 270여개나 된다. 해마다 신학교에서 배출되는 신학생 수는 무려 6,500명이나 되며, 그 가운데 학력인정 신학교에서 배출되는

신학생들은 불과 1,500명이다.¹⁰⁾

1992년 2월 21일 교육부는 신문지상을 통해 ‘각종 학교’라고 선전해 신입생 모집공고를 낸 23개 신학교를 적발하고 그중 17개 신학교를 당국에 형사 고발하고 폐쇄조치하도록 했다. 92년을 기준으로 무인가 신학교의 정확한 숫자는 교육부에서조차 파악이 안되고 있으나 대략 270여개 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¹¹⁾ 이 중에서 ‘총신대학’인 것처럼 위장한 총회신학교란 명칭도 4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무인가 신학교는 강의실과 도서관이 정상적인 교육을 시행하는데 크게 부족했으며, 교수진은 대부분 비공인 대학에서 학위를 받았으며 그나마 시간강사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운동장이나 강당 등 학생복지 시설도 극히 열악한 교육환경을 가지고 있다. ‘형편없는 교수진’, ‘부실한 교육시설’, ‘무계획한 학사운영’, ‘변칙적 교과 과정’으로 ‘무자격 목사’를 배출하고 있다.¹²⁾

그리하여 한국교회는 해마다 엄청난 수의 신학교 졸업자들을 배출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4명 중 1명만이 제대로 교육을 받은 자요, 나머지 3명은 무자격자라는 병든 현상을 구조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들 교단마다 신학교를 가지고 교수요원 미비와 시설미비로 신학생과 목회자를 양성하기 때문에 신학생과 목회자의 질은 교회수가 큰 5~6교단을 제외하면 교육부의 기준에서 보면 거의 자질미달이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 일차적이긴 하지만 세상적 교육부 기준 자격에 미달해서야 어떻게 도덕적 권위를 가

지고 이 세상을 선도할 수 있겠는가.

아홉째, 교권 다툼, 교파분열과 교단의 반목질시이다.

1993년 기독교교문사 발행의 「기독교대연감」에 의하면 ‘대한예수교장로회’ 간판을 가진 교단만 58개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105개나 되는 형편이다. 이 가운데는 통합이 5,045교회, 합동이 5,123교회, 고신이 1,266교회, 개혁이 1,565교회, 합동정통이 1,044교회, 대신이 838교회, 합동보수가 807교회인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교단은 500여 교회를 가진 교단이 한개 교단, 400여 교회가 2개 교단, 300여 교회가 8개 교단 나머지는 그외 100개 이하의 교회를 가진 교단이 16개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대한예수교장로회가 잘되는 한국사회 풍토에서 예정간판이 상점의 상표처럼 도용당하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간판을 단 이러한 교파들은 1960년대 생긴 것이 17개, 1970년대 생긴 것이 16개, 1980년 이후에 생긴 것이 20개나 되는 실정이다. 이러한 대한예수교장로회는 1907년에 생긴 교단이 교단적으로 분열되어 나가 현재 1,303교회를 가지고 있는 한국기독교장로회, 그리고 대한예수교장로회인 고신측, 합동측, 통합측 이외에는 대부분이 교권을 장악하기 위해 몇 사람들이 시작한 파벌들에 불과하다.

지난번 유선 텔레비전 방송국 허가를 당국에 촉구하는 개신교 보수교단들의 성명서가 각 일간신문지 1면에 발표되었다. 여기에 보수교단측에 105개의 교단이 대한예수교장로회라는 간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양식이 있는 신자들은 크나큰 충격을 받았다.

이러한 교파분열에는 아무런 교리적 정당성이 없다. 그뿐 아니라 같은 형제인 신자이면서 이들 같은 장로교단들 사이의 심리적 견제와 반목은 오히려 불신자들과의 관계보다도 더 심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전혀 사회 앞에서 본이 되지 못할 뿐 더러 기독교 진리를 바로 전달하지 못하게 한다.

열제, 경제성장과 더불어 들어온 세속주의 물결이다. 80년대를 지나면서 우리의 경제가 발전되고 살만해지니까 종교적 욕구가 감퇴하고 세속적 욕구가 대신 자리잡기 시작했다.

물질주의 가치관이 교회를 지배하기 시작한 것이다. 물질에 대한 축복을 강조한 교회가 물질적 풍요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고 감사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교회는 이제 물질적 가치를 영적 가치에 대체하고 있는 것이다. 물질적 가치가 바로 영적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변모하고 있는 것이다. 신앙척도와 봉사의 척도에 물질의 분량이 적용되는 것이다.

십일조와 각종 절기헌금과 감사헌금을 통하여 들어온 교회의 막대한 수입을 가난한 이웃에게 나누어 주어 이들에게 혜택을 주지 않고 교회 자체의 부를 축척하였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가진 자가 되었다. 그리하여 가난한 자와는 멀어지게 되었다. 가난한 자들은 교회의 모든 직분에서도 소외되는 경향이 있다.

장로와 권사 및 교회의 주요 직분을 맡기 위해서 세상유명세가 있거나 돈이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충성된 종이라는

직분이 세상적인 직분으로 변질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교회가 기업화되어 교인이라는 고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시류에 따라 재빨리 적응하고 있으며 신앙이 유행 상품화되고 있다. 대중문화와 더불어 주말여가를 즐기는 문화가 발전하면서 종교적 모임이나 사경회를 향하던 발걸음이 이제 야외나 명승지를 향하여 나가게 되었다.

현대의 편의주의 사고는 주일 밤 찬양예배를 앞당겨 주일 오후에 드리고 예배를 마치 밀린 짐이나 벗는 것처럼 한꺼번에 몇차례 드리고 끝내는 풍조가 서울을 비롯한 도시교회의 새 풍속도이다.

또한 현대의 무신론과 인본주의, 과학기술의 만능을 자랑하는 세속주의 물결이 인간중심론과 세속중심론을 거품처럼 부풀리고 있다. 그리하여 기독교가 전통적으로 믿어온 하나님의 왕국, 부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신앙과 소망을 이 세상의 가시적인 현상으로 간주하는 인본주의의 물결이 한국교회 내에 들어오고 있다. 교회 안에 일반 세상풍조의 물결이 일기 시작했다. 세상유명세가 교회 안에서도 적용되고 있다. 그리하여 세상적 모임이나 기구와 다른 교회의 정체성이 상실되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사회의 규범적 문화를 영적 정신적 차원으로 끌어 올리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교회가 이러한 역할을 하기는커녕 이러한 세속적 물결에 영합하는 것은 교회의 정체성을 파괴시키는 세속적 이상숭배요, 혼합주의이다.

열한제, 보수신학의 경직성과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으로 교회의 진정한 성장이 저해되었다. 보수주의 신학은 근본주의와 세대주의와

청교도주의의 요소가 혼합되면서 진정한 개혁주의로 나아가기 보다는 경직된 근본주의의 성향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 성경을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6천년 종말론에 지나친 관심을 갖는 세대주의는 시한부 종말론이 번식될 수 있는 온상이 되었다. 삶과 봉사보다도 믿음과 교회봉사를 강조하는 설교, 율법주의적 경향, 일반 은총에 대한 관심의 결여, 사회문화에 대한 관심의 결여 등은 개혁주의 아닌 근본주의에서 온 부정적인 요소들이다. 건전한 청교도주의는 사경회를 중심으로 말씀을 상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교회가 술 담배를 하지 않고 경건생활을 강조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

1960년대 초의 토착화 신학은 복음의 토착화, 1960년대 후반의 세속화 신학은 기독교의 비종교화, 1970년대부터 민중신학은 억눌린 자의 해방을 주장하면서 보수신학의 현실 외면의 결함을 보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신학적 자유주의는 복음을 토착문화와 혼동하거나 복음을 세속화와 동일시 하거나 복음을 민주화 운동과 동일시 하였다. 그리하여 선교와 복음화의 개념이 사회화나 인간화로 왜곡 되기에 이르렀다.

2) 대사회적 요인들

첫째, 사회봉사 및 사회적 예언자적 역할 외면이다.

양적성장의 추세 속에서 보수적이고 복음적인 교회의 관심은 오로지 종교적 영역에 머물고 사회를 위한 예언자적이고 윤리성을

지키는 역할을 외면하였다.

보수교회일수록 인적, 물적자원을 사회봉사나 구제에 활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대부분 교회당 증축, 기도원 착공, 교회묘지 건립, 교육관 증축, 해외선교사 파송 등에만 사용하고 있다.

대기업의 부동산투기, 인신매매 사건, 사치유흥업소의 번창, 무시된 인권, 북한사회의 종교억압, 억눌린 인권 등에 관하여 한국교회는 침묵으로 일관하였다. 한국사회의 부조리와 사회적 부정부패의 고리 제거를 위한 연구에 노력을 경주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보수교회는 심지어 반사회적, 반민주적 세력, 반양심적 세력으로 낙인찍히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거기다 목회자들은 80년대 중반기 이후에 사회적으로 인정받음에 혈안한 나머지 외국의 학력미비의 값싼 박사학위를 마구 받아오면서 사회적으로 권위를 실추하였다.

한국 KNCC의 교단이 한국평화통일을 위한 선언문을 발표하면서 한국의 평화통일에 지대한 관심을 나타낸 것과는 대조적으로 보수교회는 교회의 왕국화에만 인주하는 경향이 컸다. 그리하여 한국교회는 양적으로는 성장했으나 윤리적으로 정신적으로 한국사회의 가치관 형성에 기여하지는 못했다.

둘째, 목회자 및 교인들의 윤리성 결여로 인한 사회적 신뢰실추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93년 5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20세 이상 성인 남녀 1천 5백명을 상대로 실시한 '직업인에 대한 윤리수준 평가' 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정직성과 윤리성이 높다는 평가를

많이 받은 직업인은 천주교 신부(52.7%), 텔레비전 기자(45.0%), 스님(38.2%), 신문기자(37.4%), 교사(31.2%), 목사(30.9%), 교수(30.1%)의 순으로 나타났다.¹³⁾

여기서 개신교 목사의 정직 윤리성이 천주교 신부에 비해 20%나 격차가 있으며 불교의 스님보다도 떨어지며 텔레비전 기자와 신문기자보다 떨어진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교회 내의 각종 직분 선출에 있어서 봉사와 헌신의 강도보다는 금력과 세속적 유명세가 더 힘을 발휘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극소수이긴하나 개신교 목회자들의 비리가 신문에 보도됨에 따라서 개신교 목회자들의 사회적 신뢰도가 신부, 승려, 교사, 심지어 텔레비전 방송기자보다도 떨어지고 있다.

사회적으로 각종 물의를 빚는 사건이 터질 때마다 기독교인들이 연루된 일이 많았다. 지난 정보사 땅사기 사건에 연루된 자가 교회의 직분자라는 것이 알려지고 그가 사기한 돈의 일부가 십일조로 둔갑하여 교회로 흘러 들어간 것이 신문지상에 보도되었다. 그리하여 교회의 윤리성과 신뢰성에 금이 가도록 했다.

교회헌금이 사회적 경제적 부정의 면죄부가 될 수 있다는 한국 교회의 비윤리적 모습이 드러난 것이다. 이것은 사회적 경제적 범죄를 일으켜도 교회에 막대한 헌금을 하면 그 죄가 면죄된다는 중세 카톨릭적인 사고방식이다. 예를 들면 제6공화국 최고의 의문사기 사건에 속하는 수서사건의 사기범에 대하여 일간신문은 다음과 같이 꼬집었다. “사기범 김인수 1억 9천만원 교회 헌금, 사기범 헌금

으로는 기네스북 감”.¹⁴⁾

아직도 서민들이 많은 한국사회 속에서 강남에 위치한 교회들이 지나친 호화로운 교회단장, 내부 시설 등을 하는데 비해서 사회적 불우한 자들에 대한 교회의 봉사와 시설은 빈곤하다. 그리하여 일반 시민들의 교회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형성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셋째, 시한부 종말론 등 각종 사이비 종파로 인한 불신초래이다.

1992년 10월 28일 24시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세속인과 신자들을 미혹한 시한부 종말론들을 비롯한 각종 이단들이 창궐해서 물의를 일으켰다. 그리하여 종말론이 마치 늑대소년의 허위유포처럼 되었다. 그리고 이것이 허위임이 밝혀졌다. 이러한 사이비종말론의 떠들석한 허위유포 속에서 그것이 마치 기독교의 종말론인 것처럼 선전되었다. 그리하여 한국교회는 성경적 바른 종말론을 설교하는데 크나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다. 이러한 사이비 교단의 발호는 이들 이단뿐만 아니라 기성교회까지도 반사회적 집단으로 간주하도록 하여 불신을 낳게 한다. 1993년에는 영생교주가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영생을 준다고 신도들을 미혹하고 자기파를 이탈하는 자들을 암매장한 사건이 발각되어 사법처리 되었다.

1994년 1월 대성교회 담임 목사의 운전기사요, 신학생이 자기 담임 목사를 비판한다고 「국제 종교문제연구소」 탁명환 소장을 살해한 사건이 텔레비전과 신문지상에 크게 보도되었다. 그러므로써 마치 한국교회가 살인사건에 연루된 인상을 심어 주었다. 이 신학생은

홍은동 무인가 신학교의 학생임이 드러났다. 박윤식 목사는 통일교의 원리강론을 따르며 자신을 ‘말씀의 아버지’로 자처하고 강신술을 구사하는 사이비라는 것이 드러나 한국교회에서 이미 사이비 이단으로 정죄된 자이다.

4. 급성장의 배경과 원인

첫째, 강대국 주변에 위치한 약소국으로 생존해온 한국민족의 삶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시련의 용광로를 통하여 갈아 놓으신 한국인들의 종교적 심성이라는 일반 은총에 기인한다.

한국 민족은 반만년의 역사를 통하여 외세의 침략으로 인해 시련과 압박과 고난과 좌절과 한의 축적 속에서 그 마음이 인간을 넘어선 절대자를 의존하게끔 종교적으로 갈고 닦여졌다. 그리하여 기독교 이전에도 무속신앙, 불교, 도교, 유교, 천도교 등을 통하여 한국인들은 현실의 고통과 박해, 불확실함과 위협, 고생과 근심 속에서 자기의 신앙을 표현했다.

조선말 전통 종교들의 내적 취약기반의 약화와 민중들로부터의 소외 속에서 기독교는 내세 천국복음과 사민(四民)평등사상을 가지고 민중들에게 파고 들었다.

유교는 조선왕조를 통하여 당쟁과 양반 썩음의 계급사상으로 변질되어 민중과의 거리감을 가졌고, 불교는 승유패불(崇儒排佛)정책에 의하여 쇠퇴되었고, 도교는 풍수도참화하여 선비와 민간에 유행하는 토속 민간신앙으로 변질하였다. 그리하여 우리의 전통 종교들

은 한국 근세의 격동기에 민중의 불안감을 해소시켜 줄 수 없었고 사회적 내적 기반이 취약하여 시민들과 거리감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 사회에 뚜렷한 민족 종교가 부재하도록 했다. 그리하여 한국에 기독교가 전래되었을 때 일본의 신도(神道), 대만의 불교나 유교, 인도네시아의 이슬람교와는 달리 기독교 전래에 대한 강력하고 조직적인 배척운동이 야기하지 않았다.

이러한 종교사회적 여건 속에서 기독교는 청교도적인 신앙을 가진 선교사들에 의하여 내세 천국사상과 하나님 앞에서 사민평등사상을 외쳤다. 그리고 사회에서 소외되고 억눌린 하류계층을 대상으로 파고 들었다. 조선 말기의 사회, 정치, 경제적 문란과 관료의 부패로 인해 심한 착취와 가렴주구에 시달린 서민 민중들이 교회의 품속에서 피난처를 찾았다.

그리하여 기독교는 전통 종교가 더 이상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한국 사회의 종교적 진공기에 오히려 전통 종교가 주지 못했던 종교적 비전과 시대적 소망을 제시했다. 기독교는 당시 외세에 의하여 유리당하는 국가의 생존과 직결하여 절대자인 하나님에 의탁하여 어려운 민족의 상황을 돌파하고자 하는 당시 민중의 돌파구가 되었다.¹⁵⁾

둘째, 기독교는 한국에서는 일제의 무력합방에 반대하여 한국의 민족주의와 결합하여 한국인들에게 신뢰감을 심어 주었다. 민중과 애국적 지식인들이 다 함께 기독교를 수용하였다.¹⁶⁾ 19세기 서구의 제국주의적 침략과 팽창이 아시아에서 절정에 달했을 때, 기독교는

민족주의적 토착세력에 의하여 거부되었다. 이들에게는 정치사회적으로 기독교는 서구의 식민주의와 동일시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의 군국주의가 한반도를 점령하자 기독교는 反일본 식민주의라는 민족주의적 성격을 가지기에 이른다. 그리하여 토착 민족세력은 기독교를 민족주의의 후원군으로 인식했다.

19세기 말 열강위협 속에서 나라의 부강과 자립을 결정했던 위국충군의 애국 엘리트들은 민족의 지주와 독립의 방편으로 서구 기독교를 수용하게 되었다.¹⁷⁾

그리고 신자들의 공동체로서 교회의 강조는 일제의 압박과 사회적 위기로부터 도피할 수 있는 거처를 제공해 주었다. 그리고 기독교는 사회적 소외계층에게 자유의식과 평등의식을 심어 주었고 신문화와 민주화 의식을 심어 주었다.¹⁸⁾

여기에는 초기 선교사들의 청교도적인 신앙과 헌신적인 희생의 삶의 공헌이 있다. 초기 선교사들은 순수한 청교도적인 복음을 가져다 주었고, 교육의 가치를 높여서 기독교 학교를 창설했고, 성경을 한글로 번역해서 서민대중들에게 보급하였다. 그리고 1856년 중국에서 선교사 요한 리빙스턴 네비우스(Livingston Nevius)가 제창한 ‘세 가지 자립 원칙’(Three Self Formula, Nevius Principle)을 한국선교에 적용했다.¹⁹⁾

이러한 초창기 기독교의 기능은 서구 연합군에 의한 1945년 한국의 독립과 해방과 1950년 한국동란시 연합군에 의한 공산침략의 방어 등을 거치면서 서구 문물의 통로로써 민중들 사이에 신뢰감을

형성시켰다.

70년에 보여진 기독교의 급성장은 이러한 초창기 기독교의 사회적 기능을 담당한 진보적 기독교에 의한 인권운동, 노동운동, 농민 보호운동의 역할에도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셋째, 45년 민족해방, 50년 한국동란, 60년대 군사쿠데타 이후 과도기적인 사회의 불안, 독재적 정치 구조가 마음의 안정을 위하여 종교를 찾도록 했고 기독교는 이러한 산업사회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었다.

60년대 이후 정치적인 독재정권 아래서 사회적 인권이 억압받았던 상황에서 사람들은 심리적 안정과 도피처를 그리고 현실적인 위로와 복을 설교하는 기독교에서 찾았다. 60년대 이래의 경제성장 제일주의에 편승해서 기독교는 기복신앙을 설교했다. 현세적 축복 사상은 이러한 경제개발을 지향하고 성공제일을 추구하는 경제적 분위기와 맞아 떨어졌다. 70년대의 유신체제하에서 정권의 정통성 결여에 대한 학생 시민들의 항거, 80년대 신군부의 등장에 따른 정권의 정통성 시비에 따른 교회의 현실도피적 전도위주의 정책은 시민들로 하여금 사회적 불만을 종교적으로 충족하고자 하였다.

한국정치가 불안정한 시기에 비단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 심지어 신흥종교들까지도 성장해 왔다는 사실은 이러한 정치적 불안정으로부터 안정을 추구하고자 하는 종교적 심리에서 이해될 수 있다.

넷째, 70년대 이후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이에 따른 도시화에 의한 인구이동으로 인해 야기된 사회적 불안감은 교회성장에 크게 기여

했다. 60년대 중반 이후 산업화를 추구하면서 도시화 물결로 인해 인구의 끊임없는 이동이 야기되었다.

더욱이 공업화와 산업화로 나아가는 경제정책은 농촌인구를 도시로 몰아가게 했다. 도시로 이주해온 많은 농촌 사람들은 도시의 낯설은 문화적 지역적 환경 속에서 이질감을 느끼게 했다.

이들은 학교와 직장을 따라 거주지를 이동해야 하는 생활을 해야 했다. 그리하여 이들은 도시에서 소속감과 연대감을 상실하기에 이르렀다. 이들은 더욱이 농촌사회의 공동체 위주와 훈훈한 인간관계의 사고방식에서 멀어지고 타산적이고 공리적 사고방식을 도시로부터 배우게 된다.

그리하여 고향을 떠난 도시의 실향민들은 정체성 상실, 내면적 고독감에 사로 잡혔다. 교회는 이들이 공동체와 정체성을 발견하도록 하는데 중요한 구실을 하였다.²⁰⁾ 그리하여 많은 실향민들이 교회로 들어왔다. 여기에는 6·25사변으로 인해 남으로 자유를 위하여 피난해온 북한의 많은 실향민들도 포함된다.

다섯째, 전통적 무속신앙의 풍토는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는 선 이해의 역할을 하였다. 무속신앙은 초월적 존재를 통한 구원을 강조한다. 인간은 스스로 아무런 힘이 없으므로 초월적 존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무속신앙은 신령에게 정성과 제물을 드리는 것을 강조하였다. 기독교 복음은 이 정성과 제물을 그리스도에게로 돌리도록 하였다. 기독교는 정성이란 그리스도를 믿음이요, 제물이란 그리스도 자신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이란 사실을 일깨워 주었다.

샤머니즘의 귀신 및 제령 그리고 주재자(主宰者) 하느님과 저승 신앙은 기독교의 하나님과 천사 및 내세를 쉽게 믿도록 하였다.

무속신앙은 질병이나 재액을 만났을 때 이것의 제거를 위해 신령에게 기도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신령에게 기구하는 정성과 신앙은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의 치병과 기적을 믿도록하는 선이해의 역할을 하였다.²¹⁾

신령에게 의뢰하는 무속신앙은 기독교의 “오로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복을 받는다”는 복음 사상을 쉽사리 받아들일 수 있는 선이해의 역할을 하였다.²²⁾

기독교는 무속신앙에 의하여 선이해되는 기반을 가졌다. 때문에 한국기독교에 있어서 성경적 신관이나 신앙이 바르게 정립되지 못할 때 기도원이나 은사운동에 있어서 기도나 예배에 의해서 병을 고치거나 재액을 물리침은 샤머니즘으로 변질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여섯째, 기복신앙이 성장에 공헌을 하였다. 지금까지의 교회성장이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기복사상이 주요소가 되었다. 신앙의 진정한 대상은 하나님 자신이다. 그런데 이 분을 인격적으로 추구하기 보다도 화를 물리치고 복을 받는 것을 일차적으로 추구하였다.²³⁾ 그리하여 신앙은 자기 행복추구의 수단이 되었다. 교인들은 기복신앙을 신념으로 하여 물질의 증대와 세상적 번영을 꾀하는 바 만사성공을 시도하였다.

여기서 진정한 기독교 신앙은 무속적 신앙으로 변질할 위험성을

안게 되었다. 그리하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 십자가의 신앙이 흐려지고 신앙은 자기의 현세적인 번영을 위한 수단이 되었다. 부동산이나 각종 부정부패에 연루된 자 가운데 종교적으로는 기독교인이 제일 많게 되었다. 기복신앙의 설교를 들으면서 교인들은 기복신념의 추진력을 가지고 물질의 증대를 꾀하였다. 이러한 물질의 증대는 한국 경제의 비정상적인 현상인 부동산 투기 등을 통한 부의 축적으로 나아갔다. 그리하여 신자들은 경제성공을 하였고 이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간주하였다.

예수 믿으면 범사에 형통하고 성공하고 건강이 좋아진다는 기복신앙적 메시지는 많은 사람들을 신자로 만들었다. 그러나 그들에게 신자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윤리적 규범과 도덕적 의식을 함양시키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담없이 교회당으로 몰려 들었다. 현세의 성공과 축복을 강조하는 교회일수록 성장해 왔다.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복받기를 기원하노라”. 현세적 축복 메시지를 전하는 교회가 더욱 성장한 것은 이러한 맥락이다.

더욱이 70년대 이후 성공적으로 성장한 교회들은 일반적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의 로버트 슈러(Robert Schuller)의 ‘가능성 사고’(Possibility thinking)라는 적극적 사고방식을 도입하여 복음과 세속적 성공을 결합하고자 한 교회들이었다. 이러한 교회들이 대체로 교회성장에 성공한 것은 이러한 기복적 축복과 현세적 자기 실현에 대한 적극적 사고방식에 연유한 것이다.

일곱째, 복음화 대성회, 부흥 사경회 및 기도원과 은사운동의 결실이다. 한국교회의 양적 부흥에는 70년대, 80년대 그리고 90년대에 있었던 대형 전도집회들(1973년 빌리 그레함 성회, 1974년 엑스포 74, 1977년 민족 복음화 대성회, 1980년 세계 복음화 대성회, 1984년 백주년 기념 대성회, 1986년 아시아 복음화 대성회, 1988년 세계 복음화 대성회, 1992년 세계 성령화 대성회, 1995년 회년 남북통일 복음화 대성회)을 비롯한 교회 단위의 각종 부흥 사경회, 기도원과 은사운동이 하나의 중요한 역할을 했다. 빌리 그레함(Billy Graham) 등 세계적 설교자들의 방한 전도를 통하여 기독교의 국제적인 위상을 알리며 각종 선교단체들의 전도활동을 통한 국내선교활동은 많은 결신자를 낸 것이 사실이다. 기도원과 은사운동이 일어나 교회 안에서 체험하지 못한 불치병이 치유되고 성령의 현재적 임재가 나타남으로써 신자들은 물론 불치병으로 사형선고를 받은 많은 불신자들이 병고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다. 특히 70년대 이후 한국교회는 성령역사의 분위기를 조성하여 부흥회, 산상기도회, 철야기도회, 연합집회, 사경회, 성경연구 모임을 통하여 교인들을 영적으로 무장시키며 강력한 전도동기를 마련하였다. 그리하여 70년도 후반기와 80년도 후반기에 교회가 급성장하였다.²⁴⁾

「한국의 기도」라는 소책자를 쓴 쿠르트 코흐(Kurt Koch)박사는 이러한 한국의 영적 상황을 ‘신약성경적 풍토’(New Testament Climate)라고 특징지었다. 이러한 풍토란 한국교회는 서구나 북미의 교회와는 다르고 동남아의 교회와 달리 독특한 영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새벽기도의 습성과 철야기도의 열성과 성경공부를 열심히 하는 체질이다. 이러한 한국교회의 영성은 기독교 신앙이 한국적 풍토에서는 생동적인 체험으로 수용되었고 서구의 선교학자들은 한국교회의 성장을 예로 들게 되기에 이르렀다.

여덟째, 양적성장 정책의 결실이다.

이 정책은 전국적으로 새 교회를 개척하는 목표를 갖도록 했다. 그 예가 한국 감리교회가 1974년에 시작하여 1985년까지 교인을 두 배로 증가시킨다는 목표를 세운 것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감리교는 두 가지 정책을 획기적으로 시행했다. 첫째, 감독에 의한 담임목사 파송제도를 장로교 식으로 바꾸어서 개교회에서 초빙하는 제도로 바꾸었다. 둘째, 각 연회마다 교회성장을 선교 최우선 정책으로 삼았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감리교는 2천여 새 교회를 개척했다. 또 한 가지 예는 한국 장로교회가 1989년에 성인 70만명에게 세례를 주었으며 121개의 새 교회를 개척했다. 이것은 미국장로교회의 거의 6배의 비율에 해당한다.⁶⁰⁾

그러나 부정적인 면은 오로지 양적성장에만 치중하고 내실적인 성장을 도외시하였다는 것이다. 총동원 주일은 불신자들을 위한 초대잔치이기 보다는 오로지 이웃신자 동원의 날이 되었다. 이러한 총동원 주일은 일회적인 행사로써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지속적인 양육의 프로그램이 개발되지 못했다. 교회의 외형적 건축이나 조형에 많은 관심을 투자했으나 교회 신자의 내적인 마음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소홀히 했다. 한 영혼을 교회로 인도하고 지속적

으로 돌보기 보다는 교회로의 인도에만 신경쓰게 됨으로써 인도받은 영혼이 道の 벗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되지 못했다. 이러한 양적 성장주의 편성으로 인해 신도시 상가빌딩에는 각종 개척교회가 난립해서 교인들을 쟁탈하는 생존경쟁의 치열한 투쟁장이 되고 있다.

아홉째, 가진 자의 교회, 곧 대형교회 지향이다. 양적 성장에 따라서 각 교회는 대형교회를 목표로 삼고 오로지 신자들의 증가에만 관심을 갖는다. 이들은 내실적인 성장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 대형교회일수록 사랑방 공동체의 성격은 사라지고 거대한 회사내지 기업체 같은 분위기가 지배한다. 그리하여 신자들 사이에 인격적이고 형제 자매같은 공동체 소속감이 결여되고 거대한 종교적 회사에서 느끼는 소외감이 지배하는 것은 사실이다.

대형교회는 자기교회 교인의 묘소까지 만들면서 교인들을 제도적으로 시신 안식소인 교회에 소속시키도록 했다. 그리하여 한국교회는 소외된 자의 도피처이기 보다는 제도권 안에서 특권을 누리 고자 하는 가진 자의 교회가 되고 있다.

교회분열의 경우 가족의 시신을 이장해서 나가야 하는 것이 한국 대형교회의 체질이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는 교회의 분열이 죽은 가족들에게 영향을 주며 천국에서도 안식하는 처소를 달리해야 하는가 의아감을 주고 있다.

열째, 근본주의적 배타성과 집단적 이기주의에 의하여 지배되는 교파와 교권주의는 교회의 외형적 성장에 기여했다.

한국 보수교회가 가지고 있는 근본주의 성향은 순수하고 정통적인 것에 대한 강한 열정이다. 그리하여 자기와는 다른 자들에 대하여 '불순한 것' 또는 '비정통적인 것'으로 간주하여 이들을 정죄하고 자기와 분리시키는 생리를 가졌다. 이렇게 분열시키면서 한국교회는 양적으로 성장했다. 해방과 더불어 한국교회는 근본주의적 정죄에 의하여 계속 분열되었다.²⁰⁾ 재건파가 '순수성'을 고집하면서 분리되었고, 그 다음 고신파, 기장이 분리되어 나갔다. 그 다음 예장의 통합과 합동이 분열되었고, 다시 합동측에서 여러 개의 파벌들이 분열되어 나갔다. 그래도 1950년까지의 분열은 그 나름대로 신학적 이념이 이슈로 등장한 분열이었으나 1960년대 이후의 분열이란 이념조차 없는 교권주의적 세력다툼에서 주도권 쟁취의 전망을 보지 못하는 군소파벌들이 분리되어 나간 것이다.

이처럼 양적성장이 지속되고 교단의 몸체가 비대해짐에 따라서 교권주의와 관료주의가 팽배하고 이에 소외된 자들이 교단을 이탈하여 새로운 교단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것이 대한예수교장로회라는 간판으로 나타난 무수한 군소교단들이다. 이러한 군소교단은 자기들의 생존을 위하여 교회개척에 열을 올리니 교회는 증가하게 되었다. 한국교회의 성장이란 특히 이들 군소교단의 급성장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대체로 이러한 교회는 개인의 심령구원만을 목표로 삼으면서 사회적인 봉사과 헌신은 도외시하였다. 그리하여 군소교단은 한국교회의 대사회적 이미지를 훼손적이고 부정적인 것으로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5. 내실적인 '교회성장'의 대안

1) 교회내적 성장의 지침

첫째, 목회자의 자기개발이 요구된다. 교회성장의 주역은 무엇보다도 목회자 자신이다. 그러므로 목회자의 자질향상이 절실히 요구된다. 인격이 투영된 목회가 요청된다. 목회자 자신이 애쓰는 목회자 아닌 하나님의 목회를 해야 한다. 목회자의 사회적 신뢰가 회복되도록 윤리성이 높아져야 한다. 목회자는 영성을 개발해야 한다. 영성이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통찰하는 것을 말한다. 이 시대의 갈길을 제시하는 예언자상이 요구된다. 듣기에 감미로운 설교가 아니라 설교자가 중요하다. 목회자는 입술과 혀보다는 삶과 행동으로 말해야 한다. 진실된 삶, 강단에서 외치는 설교와 일치하는 삶은 최상의 설교이다. 이러한 목회야말로 인격이 투영된 목회이다. 영적인 권위와 함께 도덕적 윤리적 권위를 회복해야 한다.

그 대표적 예가 미국의 평범한 목회자 프랭크 틸라프(Frank Tilgelaup)가 개척해서 목회하는 '베어 밸리 침례교회'(Bear Valley Baptist Church)이다. 그는 대단한 신학자나 설교자도 아니고 교회 운영이나 행정에 뛰어난 은사가 있는 자도 아니었다. 그는 단지 남아연방 선교학자인 데이빗 보쉬(David Bosch)가 제시한 교회의 모델을 이상적으로 목회에 실천한 자였다. 보쉬에 의하면 교회성장의 모델이란 무한정의 성장이 아니라 내실적 성장이다. 그것은 인위적인 성장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교회로서의 성장이다. 그것은 살아 있는 교회로서 성장하면서 이 세상에 맡겨진 책임을 다하는 교회의

모습이다. 틸라프 목사는 이러한 성장모델에 입각해서 1970년대 100여명으로 시작해서 1982년에는 1000명이 넘는 성장을 보여주었다. 여기서 특이한 것은 틸라프 목사가 좌석이 275개밖에 없는 교회당을 증축하거나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지 않으면서 내실적 방향으로 교회성장을 하고 있는 데 있다.²⁷⁾

소규모의 시설은 대형교회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목사와 교인들과의 관계를 연기자와 관객의 관계로부터 해방하여 인격적인 관계로 회복시켜 준다. 소규모 시설이 대규모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지 않는다. 이러한 행사를 위해서는 큰 교회나 고등학교 강당을 이용한다. 소규모 시설을 가진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교회그룹 수를 증가시키는 것이다.

그룹이 증가함에 따라 목사나 교사를 포함한 지도자들이 역시 증가한다. 틸라프는 성경에서는 일인극(one man show)을 찾아볼 수 없다고 한다. 성경은 다수의 목사와 다수의 장로들이 행하는 사역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회는 참여적인 몸이다. 목사와 교사들은 다른 사람을 가르칠 사람들을 가르치는 모범을 세우도록 되어 있다.”²⁸⁾

대형교회에서처럼 담임목사 일인극 아래서 부목사는 단순한 보조자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다. 부목사가 해야 할 자리를 만들어 단순한 보조자가 아니라 협력자가 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교회는 요새화된 교회가 아니라 해방된 교회이다. 담임목사만 설교를 독점하지 않고 부목사도 설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교회가 해방된

교회이다. 요새화된 교회는 일인 슈퍼스타의 연기를 행하는 교회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방된 목회는 섬김모임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섬김모임은 목사의 지도를 받은 평신도들이 자기의 조그마한 그룹의 지도자가 되어 제자를 양육하는 것이다.²⁹⁾ 섬김모임은 밀접하게 연결된 소그룹으로써 평균숫자 10명이 모여 친교하면서 공부와 봉사를 한다.

둘째, 내실있는 신자양성을 위한 양육 프로그램, 케리그마(선포), 코이노니아(친교), 디다케(교육), 디아코니아(봉사)가 필요시 된다.

케리그마는 교인들이 심령으로 변화를 받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것이다. 코이노니아는 불신자들이 교회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신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신자들과 같이 나누는 교제이다. 디다케는 교인들을 제자로서 훈련시키고 성경과 교리를 공부시켜서 교회의 한 지체가 되게 하는 것이다. 디아코니아는 불우한 이웃과 가난한 신자들에 대한 봉사를 말한다.

교회성장이란 단지 한 불신자를 회개시키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교회로 인도하여 교제에 참여케 하고 훈련시켜 교회의 지체가 되고 이웃과 사회를 향한 봉사에 참여케 하는 것이다. 영혼의 구원이라는 의미인 복음회에서 더 나아가 그리스도와 이웃에 대한 봉사와 헌신이라는 의미인 제자화를 말한다.³⁰⁾

이를 위하여 신자의 제자화 프로그램, 영성개발, 성경공부, 평신도 신학강좌가 필요하다. 교회가 사랑방 공동체의 역할을 회복하도록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다가오는 21세기를 예비하는 목회 프로그램이 요청된다. 다가오는 고도의 후기산업사회를 준비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요청된다. 신자들 가운데 각 영역의 전문가들을 선발해 내어 다가오는 21세기의 각종 문제들에 대하여 신앙적으로 대응하도록 연구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내실적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교회의 한 예로써 '안산 동산교회'를 들 수 있다. 이 교회는 중형(中型)교회로서 내실적 성장을 위해 재래적인 심방중심, 강의식 성경공부 목회에서 제자훈련과 평신도 훈련목회로 목회방향을 전환하였다. 이러한 결과 제자훈련을 시작한 1987년 주일 장년 출석수가 1,397명이었는데 5년이 지난 1992년에는 장년 출석수가 3,179명으로 늘고 교회가 영적으로 안정화되고 있다고 한다.³⁰⁾

셋째, 평신도의 의식 개혁이 요청된다. '자기교회', '터줏대감'이라는 사고가 개혁되어야 한다. 오래 다닌 사람, 돈 많이 낸 사람, 창립 멤버 등은 '이 교회는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고가 변화되어야 한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요, 우리는 그의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교회는 그러므로 성직자의 것도 아니다. 성직자와 평신도가 함께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제자훈련과 성경공부를 복음적인 삶으로 실천해야 한다. 신자로서의 양육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양육되어야 하고, 협력목회자가 되도록 양육되어야 한다. 평신도들은 자신들이 교역자들에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로지 의롭다 인정 받은

자들이요,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각성해야 한다. 반드시 담임 목사가 헌금에 축복하고 심방예배를 집례해야만 축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다. 부목사도 마찬가지로 축복권을 가지고 있으며 성령을 받아 중생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모든 평신도가 축복권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이 발견한 만인제사장직(universal priesthood) 사상이다. 이러한 만인제사장 사상이 평신도 사이에 의식화되어야 한다.

넷째, 개교회 위주를 탈피하고 한국교회 전체를 생각하고 농어촌 벽지교회를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한국교회의 개교회주의는 대형교회회를 초래했다. 그리하여 대형 교회가 노회를 좌지우지하는 무정부 상황을 초래하였다.

개교회 위주의 목회를 지양하고 자기 교회를 그리스도 몸의 한 지체로 생각하고 한국교회 전체를 생각해야 한다. 특히 농어촌 벽지교회를 지원하여 이들 교역자들이 어려움없이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기주의와 배타주의를 탈피해야 한다. 목회자들이 자기 교회 중심으로 설교하고 목회하기 때문에 교인들도 따라간다. 그래서 교인들도 자기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만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자기교회 울타리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으로 제한시키는 경우가 많다.

우리 개신교도 카톨릭처럼 동네 교회에 다니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농어촌 벽지교회는 아직도 자립을 못하는 교회가 많다. 교역자들의 대우는 도회지 교회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리하여 같은 교역자이지만 농어촌 교회의 교역자들은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어렵게 목회하고 있다. 따라서 교역자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자녀교육과 문화환경이 열악한 농어촌 교회를 피하고 도회지로 모여 드는 것을 비난만 할 수 없다. 한국교회는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무엇보다도 대도시에서 목회하는 교역자들이 술선수법해서 이들에게 진 빚을 갚는다는 자세를 가지고 이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농어촌 교회의 영세성은 인구는 적는데 교파의 분열로 인해서 여러 교회가 세워져 교인들이 분산되니 자립할 수 없게 된다. 그리하여 많은 농어촌 교회가 전도사만 모시게 되는 목사배출소 기능을 하고 있다. 따라서 교회끼리 통폐합하여 농민들 사이에 신뢰감도 조성하고 영세성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³²⁾

다섯째, 젊은이들을 위한 교회의 프로그램 개발이 요청된다. 교회는 대예배 위주로 진행된다. 주일학교는 설치만 해놓으면 그대로 굴러간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또한 주로 교구담당 부목사가 대학부나 청년부를 겸임하게 한다. 그리하여 대학생들의 문제의식과 청년들의 비판의식에 상응하는 지도자의 결여와 프로그램의 결여가 초래된다. 젊은이들에게는 기독교적 가치관, 세계관 형성의 문제, 이성교제의 문제, 결혼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회개혁의 문제, 생태계 파괴와 환경문제, 부의 분배의 문제, 이데올로기 문제, 노사관계 문제, 남북 통일에 관한 기독교의 역할 문제 등에 관한 진지한 토의와 이에 대한 방향제시를 필요로 한다.

교회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세미나를 가지게 하고 젊은이들이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연구를 하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그뿐 아니라 병원 방문, 고아원 방문, 교도소 방문을 통하여 환자, 고아, 죄수들과 대화하며 이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하는 실천적 프로그램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각종 복음화와 관련된 행사에 있어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섯째, 건전한 신학과 교회성장 신학이 개발되어야 한다. 건전한 교회성장이란 교회당의 확장만을 말하지 않는다. 사도행전이 증거하는 초대교회는 선교와 구제를 두 가지의 목적으로 삼았다. 그리고 초창기의 한국교회도 선교와 구제를 균형적으로 실천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부터 한국의 대형교회들은 제정의 풍요를 누리면서 1950년대와는 달리 더욱더 헌금을 강조해왔다. 한국교회는 선교만을 지상의 과제로 생각하고 교회의 확장을 위한 모든 일을 정당시 하였다. 더 많은 사람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교회를 더 크게 지어야 하고 구제에는 인색한 균형을 잃은 교회가 되었다.

예배시 헌금을 바친 사람을 광고하거나 복을 비는 일은 1950년대 이전에는 볼 수 없는 진기한 풍습이 되었다. 여기에는 영원한 하늘 나라에서 상급주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단지 물질을 바치는 데 따라서 복을 내리는 샤머니즘의 신 표상에 머무는 퇴폐한 풍조이다.³³⁾

한국교회의 성장은 개인 구원의 차원에 머물렀다. 사회 봉사

구제와 불우한 이웃을 위한 사랑과 헌신의 실천을 하는 성화의 삶에는 소홀히 했다. 그리하여 신앙은 좋으나 이웃을 자기처럼 사랑하는 박애의 실천은 신자들에게는 너무나도 먼 일이 되어 버렸다. 한국교회의 성장은 신앙과 정성을 키우도록 하기 위해 전도나 선교를 위하여 집을 팔아 바치는 열성을 가지게 한다. 그러나 불쌍한 이웃을 위하여 그리고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사랑을 베푸는 박애의 실천이 결여되어 있다.

그리고 사회의 부정부패의 고리에 대한 각성과 윤리의식이 결핍되어 있다. 그리하여 신자들은 교회왕국 지향적인 사고로 혼란판기에 이르고 교회의 사회를 위한 봉사와 구제와 참여에는 열매를 맺지 못했다. 여기서 교회는 이 세상에서 빛을 비추는 등대가 아니라 세상 속에 있으나 자체 속에 폐쇄된 교회가 되어 버렸다. 그런 유형의 종교인으로 교인들은 기형적인 성장을 하게 되었다.

일곱째, 무인가 신학교를 자체적으로 정비하고 어느 교파에서 교육을 받든 정상수준의 신학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신학교 교육 평가위원회를 설치해 신학교 교육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전국에 산재해 있는 신학교의 현황에 대한 정밀조사와 공정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

자격미달의 신학교는 두 가지 방향으로 정비되어야 한다. 하나는 교계정화의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단속해서 폐교시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불실신학교를 양성화시켜 교육의 질을 높이도록 하는 것이다.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학자율화의 정책에 발맞추어 한국교회가 이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전국신학대학협의회(KAAATS)가 신학교육평가 기준 및 인가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도서관, 교수진, 복지시설, 강의실, 주위환경 등의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 기준미달 학교는 컨소시엄 형태로 서로 협력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컨소시엄이 어려운 경우는 정규 신학대학에 위탁교육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³⁰⁾

여덟째, 말씀의 선포와 함께 성령의 생동적 역사에 열려 있어야 한다. 한국장로교회는 불건전한 신비주의 운동을 경계한 나머지 성령의 생동적 역사에 대하여 닫혀있고 오로지 말씀의 강해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성령의 기름부으심 없는 말씀의 선포는 딱딱한 교리의 선포나 인본주의적 설교가 되어 버린다. 초창기 한국교회는 1907년 평양 장대현교회의 부흥을 계기로 크나큰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다. 그러나 1930년 이후 한국교회는 프린스턴 신학의 영향을 받아 성령의 생동적 역사를 회심이나 중생 등에만 제한시키고 초자연적이적과 치유에 대하여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기독교 전통에서 빛나간 변질된 것이다. 교회사적으로 어거스틴, 루터, 칼빈 역시 성령의 생동적 역사를 인정했다.

후기 어거스틴은 성령의 생동적 역사에 의한 치유를 인정했고 칼빈 또한 성령의 내적 확신을 강조했다. 루터는 치명적인 병을 앓고 있는 친구 필립 멜랑히톤(Philip Melancton)의 회복을 위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했을 때 멜랑히톤은 즉각적으로 회복되었다.³⁵⁾

장로교의 위대한 설교자 스펀전(Spurgen)은 “성령의 역사하심은 교회의 절대적인 요구사항”이라고 역설한다.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기 전에는 아무리 개혁과 개선을 반복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동일한 상태에 머무르게 될 것이다”고 그는 말하고 있다.³⁶⁾

아홉째, 신학으로 정돈된 건전한 기도원 운동과 은사운동이 요청된다. 은사운동이 교회성장의 수단이 될 수가 없다. 그 구체적인 예가 노회에서 경영하는 성경학교 3년을 졸업하고 어느 시골교회에 부임한 전도사의 경우이다. 그 교회에 소아마비로 다리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여신도가 있었다. 집호수는 80호 정도되는데 교회가 생긴지 10년이 지났지만 10명밖에 모이지 않았다. 그래서 전도사는 부임하자마자 마을 이장과 약속을 하였다. “이 소아마비 신도를 기도로 고쳐줄테니 낮기만 하면 부락민 전부가 교회에 출석을 해야 합니다.” 부락민은 전도사가 장담을 하기에 그렇게 믿고 약속을 하였다. 전도사는 안간 힘을 다하여 기도하고 철야기도도 하고 금식기도도 하였으나 그 소아마비 신도는 조금도 낫지를 않았다. 그리하여 그 전도사는 부임한지 40일 만에 그 교회를 떠나고 말았다.³⁷⁾

이와 반대로 각종 치유를 통한 기적이 일어나는 경우 마치 그것이 신앙의 기준이 되는양 신자들을 오도하게 된다.

하나님은 은사를 위한 은사를 주시는 분이 아니시다. 은사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표현으로 나타난다. 예수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사탄의 유혹을 거절하였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광의 모

습으로 전파되지 않고 비천한 십자가의 모습으로 전파된다. 그러므로 기도원과 은사운동을 하는 자들은 건전한 신학과 성경연구로써 자신의 체험을 하나님 말씀의 바른 궤도 위에 설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열째, 교회의 자기 정체성 확립이 요청된다. 한국교회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정하는 방향으로 자기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 좌로 치우는 것은 교회가 이 세상의 풍조에 영합하여 세속화되는 것이다. 우로 치우치는 것은 교회가 이 세상을 등지고 신비주의나 교권주의에 빠지는 것을 말한다. 한국교회는 자유주의 이단과 신비주의 이단에 대하여 자기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

1930년대는 한국교회 시련의 해였고 그 시련은 오늘날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시련은 1930년대 일본의 신사참배 강요에 대한 공교회의 굴복이었다. 여기에는 1930년대 들어온 자유주의 신학이 그 한 몫을 감당하였다. 평양신학교가 일제에 의하여 폐쇄된 틈을 타서 신사참배를 받아들인 조선신학교가 세워진 것이다. 그리고 이용도를 비롯한 신비주의 이단이 한국교회를 현실도피로 이끌고 갔다. 이것이 1950년대 이후에 있게 될 이단운동의 모체가 되었다.

한국교회는 60년대의 군사정권이 내걸었던 경제개발 제일주의에 편승하여 성장제일주의를 유일한 선으로 표방하였다. 군사정권 때의 졸속한 경제건설의 후유증이 성수대교의 붕괴와 더불어 각종 대교의 붕괴위험, 지하철 누수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한국교회의 급

격한 성장도 90년도에 들어와서 그 한계에 도달하고 있는 것이다.

2) 한국사회를 향한 지침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 교회는 목회자나 장로나 터줏대감의 교회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 성장의 주체는 목회자나 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 외 어떠한 권위가 교회를 지배해서는 안된다.

1930년대 한국교회는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에 굴복하여 일제의 총칼의 위협 속에서 총회적으로 신사참배를 가결했다. 그러나 보수 신앙을 가진 주기철 목사를 비롯한 보수계 목사들과 신자들은 신도(神道)와 군국주의의 노예화에 저항하면서 순교하여 교회의 순결성을 지켰다. 그리하여 한국교회가 주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임을 확인하였다.

교회 신자수나 교단의 신자를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증가시키고 그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선취적으로 이루는 것이 그리스도 교회의 임무이다. 그러므로 한국교회 선포의 주제는 자기 교회나 자파 교단이 아니라 다가오는 왕국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이다.

둘째, 다가오는 21세기는 기술적으로 선진화된 한국사회가 정신적이고 영적인 리더가 되어야 한다. 한국교회는 이 세상의 등대로서 우리 사회의 나아가야 할 길을 예시해야 한다. 현재 한국사회는 역사상 유래 없는 문민정부의 출범으로 사회의 개혁운동이 정부 주

도로 진행되고 있다. 교회는 이러한 한국사회의 정신적 도덕적 전환기에 도덕성과 윤리성을 진작시켜야만 한다. 정의사회 의식과 공동체 의식 구현을 위한 운동에 앞장 서야 한다. 그리하여 한국사회의 민족사 형성에 한국교회는 선두에 서서 참여하는 민족교회가 되어야 한다.

다가오는 21세기에 우리 한국사회는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하게 될 것이다. 한국교회는 이러한 복지사회를 향하여 나아가는 한국사회의 정신적 이념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복지사회 속에서는 더 이상 생존의 위협이나 사회의 불안으로부터의 도피처로서 교회를 찾지는 않게 된다. 사회가 안정되고 복지화될수록 종교에 대한 필요는 반비례된다. 이러한 정신적 상황을 예견하면서 기독교는 성숙한 사회를 향한 기독교의 의미를 질문하는 새로운 신앙정립을 해야 한다. 기독교 신앙이 더 이상 현실도피나 문제해결의 수단으로써가 아니라 인간이 가져야 할 근본적인 존재양식으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종교의 의미에 있어서는 서구 현대신학자들의 문제설정과 해답은 하나의 참고가 될 수 있다.³⁸⁾

셋째, 다가오는 고도의 소비 향락 사회를 향하여 영적 메세지 전파와 정신적 가치관 정립에 노력해야 한다.

사회적 근본가치관 설정에 기여해야 한다. 그것은 고도의 소비사회에서 새로운 금욕적인 삶의 태도, 청빈한 삶의 자세, 이웃과 더불어 나누는 삶의 자세, 먼저 양보하는 삶 등을 말한다. 이것은 다

가오는 21세기를 직면하면서 환경과 더불어 조화스러운 삶의 패턴이다. 80년대부터 경제적 부의 축적과 더불어 종교성을 상쇄하는 강력한 여가 산업(Leisure Industry)이 생겨나고 있다. 이러한 여가 산업은 교회가 전통적으로 해온 정치적 불안정의 상황에서 심리적 안정의 기능, 경제적 빈곤과 소외의 상태에서 보상의 기능, 도시화에 따른 공동체 상실의 상태에서 연대감을 제공하는 기능을 대행하고 있다. 그 예가 골프장, 사우나, 호화음식점, 림살롱, 술집, 여관, 디스코장, 노래방, 각종 전자오락실, 헬스클럽, 에어로빅, 각종 대중 스포츠시설, 해외관광, 휴양지시설이다. 이러한 여가 산업이 봄을 맞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고도산업화 사회의 필연적인 현상이다. 교회는 이러한 여가 산업의 도래와 함께 인간들이 여기에 만족할 수 없고 영원한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과 영원한 세계에 대한 긍정적인 관심과 질문을 해야만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영적 메시지와 정신적 가치관 설정을 해야한다.

교회는 여가 산업을 포함한 종교적 기능대행물(functional equivalent)에 대처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참된 공동체의식의 회복, 안정과 휴식의 향유, 긴장과 갈등의 해소, 소외감과 박탈감의 해소 등이 신앙적으로 교회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해야 한다.³⁹⁾

넷째, 사회의 도덕성 함양에 기여하고 사회적 봉사를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1920년 중반 이후에 한국교회는 농촌 진흥을 위한 계몽과 교육에 힘을 기울였다. 그럼으로써 교회는 영적인 삶

에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고 민족의 생활고를 해결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다. 한국교회는 초창기의 사회봉사 정신을 재활성화해야 한다.

한국교회는 사회에 봉사해야 한다. 종교만을 위한 교회여서는 안 된다. 사회의 각종 소외자들을 위한 피난처와 상담처가 되어야 한다. 교회는 높은 도덕성을 실천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도덕성을 함양하는데 기반을 형성해야 한다.

특히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에 앞장 서야 한다. 교회의 윤리의식이 각성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의 경우 자본주의가 불균형하게 발달하는 과정에서 신자들이 구조적으로 부정에 개입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인천 구청의 세무 공무원의 세금 착복 사건에 신자가 개입되었다거나 각종 공직사회 비리에 신자들이 연루되는 사건들이 비일 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부정으로 번 돈은 큰 액수로 교회에 바쳐진다. 그리하여 교회가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교회는 신자들의 경제활동의 도덕성과 정당성에 대하여 끊임없이 문제의식을 제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신자수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사회에 대한 공신력은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정의사회 구현에 있어서 교회는 존재 가치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이제 신자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의식화되고 성숙한 기독교인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다섯째, 사회를 위한 봉사과 구제사업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한국교회는 십일조와 각종 주정 월정 절기헌금을 통하여 들어오는 헌금을 교회의 자체 유지만을 위하여 쓰지 말고 사회의 불우한 자들을 위하여 쓸 수 있어야 한다. 아직도 우리 한국사회는 빈부 격차가 심해서 사회적으로 의료혜택이나 각종 사회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 많다. 소망교회가 청소년 직업훈련원을 개설한 것이라든지, 충현교회가 장애인 복지시설을 개설했다든지, 광림교회가 귀국한 사할린 동포들을 위한 요양원을 건립했다든지, 순복음교회가 불우한 청소년을 위한 기술 학교인 엘림복지기관을 건립한 것은 한국교회가 이 방면에 눈을 돌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교회는 교회의 헌금을 가지고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기독교 의료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전국에 기독교 학교에 부속된 의료원이 많으나 이들 의료원이 환자들의 진료비에 의하여 운영되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 한국개신교가 초교파적으로 연합해서 들어오는 십일조 가운데 얼마를 적립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북한선교와 교회 재건 및 북한 신자 지원을 위한 경비를 비축하는 것도 요긴한 일이다. 신명기에 의하면 십일조는 반드시 교역자들만을 위하여 쓰는 것은 아니었다. 주위의 나그네와 불우한 자들을 위하여 사용되었다.

“매삼년 끝에 그 해 소산의 십분의 일을 다 내어 네 성읍에 저축하여 너의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중에 우거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법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신 14 : 28~29).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세상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선교는 교회나 목회자 중심이 아니라 성령중심의 목회이다.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목회자는 거기에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교회여야 한다. 성령의 사역을 기다리는 교회여야 하며, 인간의 그룹다이나믹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에 쓰임받는 교회여야 한다. 성령의 사역은 항상 말씀의 선포와 순종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것은 치열한 약육강식의 생존경쟁이 아니라 상호 양보하고 협력하는 사랑과 평화의 선한 싸움이다. 이웃 교회가 성장 발전함으로써 나의 교회가 기쁨을 얻는 사림의 공동체이다.

여섯째, 평화통일과 이질화된 남북사회를 화해시키며 중재자가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초창기 교회는 일제의 핍박을 받고 성장해오다가 1919년의 3·1운동에는 초교파적으로 적극적인 참여로 민족의 독립을 외침으로써 민족의 교회임을 확인하였다.

한국교회는 이러한 민족교회의 이념을 되살려야 한다. 남한 신자들 뿐만 아니라 북한 신자들까지도 포함하는 그리스도의 목자가 되어야 한다. 북한 사회에서 신앙을 사수하고 있는 지하 교회의 신

자들을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도우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근래에 와서 한국기독교총연맹 안에 남북교회협력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남북교회재건위원회가 활동하면서 다가올 통일을 대비하여 북한교회 재건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

일곱째, 교단적으로 대화하고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교회이다.

해방과 더불어 한국교회는 분열을 경험했다. 신사참배의 후유증으로 장로교와 감리교가 분열했다. 장로교에서는 6·25동란 중 고신측이 분립하게 되었고 1959년에는 통합과 합동이 분열되었다. 그 이후로 합동으로부터 다시 분열되어 개혁측, 정통보수측 등 수많은 교파들이 생겨 대한예수교장로회 간판만 가진 교파만 105개를 헤아리고 있다.

이러한 교회의 분열은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보수주의 장로교에서 주로 일어났다. 신앙의 보수를 명분으로 내세우는 독선적인 사고방식과 하나님 말씀을 믿으나 성경을 주관적으로 이해하는 종파적 견해에 사로 잡혀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교회사적 안목을 가지고 연합하는 운동이 절실히 요청된다. 남북통일을 위하여 교회가 귀감이 되려면 교단의 연합과 일치운동 그리고 교파의 통일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남북통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남북의 민족 간의 중재를 할만한 입장에서 있지 못하다는 것을 도덕적으로 명심해야 한다.

여덟째, 이미 우리 사회 안에 전승되어 오는 불교, 유교, 무교 등

재래종교와의 변혁주의적 대화를 시도하면서 이들 종교들과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이 요청된다.

기독교 신자는 타종교의 신자들 그리고 불신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일반 은총 속에서 같이 산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문화적 유산을 공유하는 민족공동체의 일원으로 함께 어울려 산다. 한국문화를 향유하고 형성하며 전수하는 일에 기독교 신자나 타종교의 신자들은 같이 참여한다. 타종교도 진선미와 구원과 거룩성을 추구하는 노력이 있다.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타종교의 현실을 인정하고 관용해야 한다. 그렇다고 타종교에 구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 관용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미치는 타종교의 현실에 대한 인정이다. 그리고 이 관용은 아직도 종교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구원을 추구하나 진정한 하나님과 구세주를 알지 못하는 데 대한 연민과 동정의 발로이다. 이들에게 참 하나님과 구세주를 증거해 줄 사명을 기독교 신자들은 가지고 있다.

아홉째, 해외선교를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교회의 생동성을 유지해야 한다.

초창기 한국교회는 간도와 연해주에 사는 교포들을 위하여 선교사를 파송했다. 그리고 중국 선교를 위해서 중국 산둥성과 상해에 선교사를 파송했다.

당시 외국이나 다름 바 없었던 제주도에도 이기풍 목사를 파송하였다.

1987년 7월의 통계에 의하면 아시아에 172명, 유럽에 70명, 북남

미에 65명, 아프리카에 40명, 중동에 14명, 호주에 5명 합계 368명이다.⁴⁰⁾ 1990년 1월의 통계에 의하면 687명으로 1년 반만에 거의 배로 늘어났다.⁴¹⁾

1994년 현재 세계 50대 교회 중 한국교회가 23개나 포함되어 있고 1천명 이상의 해외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다.

1989년 4월 10일 자 뉴스위크(News Week)지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최근 36시간마다 새로운 교회가 생겨나고 있다고 한다. 아직도 중국은 성경 읽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에게는 종교적인 서적이거나 노래에 접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아직도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다고 투옥된 신자들은 귀와 혀와 다리를 잘리는 박해를 겪는다. 그러나 이제 중국의 기독교 신자들은 그리스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들은 믿을 만한 것을 추구하던 끝에 하나님밖에는 진정으로 신뢰할 존재가 없음을 발견하고 있다고 한다.⁴²⁾

하워드 스나이더(Howard Snyder)는 공산 중국이 멀지 않아 기독교 중국이 될 것을 예시하고 있다.⁴³⁾ 북한의 선교는 우리 한국교회의 지상과제이다.

예컨대 '전주 안다옥교회'는 교회 예산의 60%를 선교비로 지출하고 남성 선교회가 32개, 여성 선교회가 35개로 교회 안에 모두 67개의 선교회가 풀가동되고 있다고 한다.⁴⁴⁾

열제, 종말론적 삶을 보여주는 교회이다. 한국교회는 그러나 이 세상사에 집착해서는 안된다. 역사과정에 매달려서는 안된다. 이 세

상사를 진지하게 대하되 하나님의 왕국의 입장에서 보고 초연하게 대처해야 한다. 우리는 이 세상의 시민이 아니고 다가오는 하나님 왕국의 시민이요, 영원한 본향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종말론적 초월성에 의하여 지배됨으로써 교회는 역사 속에 있으나 역사과정에 함몰되지 않고 그것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으로 씩우심을 받게 된다.

6. 교회성장에 대한 신학적 이해

1) 개교회 팽창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성장과 확장

교회성장이란 개체교회의 지속적 팽창을 말하지 않는다. 개체교회의 성장이란 하나님 교회의 성장을 목표로 해야 한다. 내가 목회하는 교회가 성장함은 나의 교구가 확장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이 확장되는 것이다. 개체교회의 팽창을 성장의 목표로 설정하는 교회는 대형교회로 발전하게 된다. 여기서 개체교회는 그 발언권과 세력을 넓힐 수 있으나 그리스도의 왕국의 확장과는 거리가 멀 수 있다. 그러나 진실로 성장하는 교회는 개체교회의 확장이나 팽창이 아니라 하나님 왕국의 확장에 관심을 가진다. 그리하여 여러 개척교회와 벽지 교회가 제대로 자라도록 도운다. 자기보다도 그리스도의 유기체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교회성장이란 개체교회 성장을 넘어서 하나님의 교회성장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 개체교회 성장에만 주안점을 둘 때 과도한 성장경쟁, 교파난립, 분열현상 등이 나타나게 된다. 하나님 나라는 교회를 포함하지만

교회가 바로 하나님 나라는 아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성장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성장일 수는 없다. 하나님 나라 성장이 궁극적인 과제이며 교회의 성장이란 궁극 이전의 과제이다.⁴⁶⁾

2) 제자도가 있는 교회의 성장

제자도(弟子道)가 없는 영성은 종교성일 뿐 기독교적 영성은 아니다. 싸구려 은혜를 받는 신자가 아닌 제자됨을 대가를 지불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본훼퍼(Dietrich Bonhoeffer)가 지적하는 바 같이 제자직(職)의 교회이다. 제자직은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적인 결단에서 이루어진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요, 내 속에 거하시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는 신앙이 제자직의 신앙이다. 제자직이란 주인의 변화요, 세계관과 인생관의 변화이다. 진정한 제자는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인 복음화의 명령을 실천한다. 가서 온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포한다. 제자직은 영광의 길이 아닌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영광을 거두시기 때문이다.

3) 문화적 사명을 함께 수행하는 교회의 성장

지금까지 교회성장은 교인들의 영적성장과 교회의 숫적성장에 주안점을 두었고 문화적 사명은 등한시 했다. 그리하여 양적 교회 성장은 사회와 역사적 현실을 등진 교회의 왕국화로 나아갔다. 교회의 내실적 성장이란 문화적 사명(cultural mandate)과 무관하지

않다. 그것은 오히려 문화 속에서 그 복음의 빛을 발하고 그 문화의 죄성과 부패성을 변혁시키는 과제를 수행한다.

여기에는 윤리적 헌신, 도덕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 가난하고 약한 사람을 착취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할 때는 먼저 그들의 잘못된 행위를 회개하고 변화시켜야 한다. 그럴 때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진정한 제자직은 복음의 사회적 윤리적 측면도 역시 중요시한다.

4) 영적인 단일성과 문화적 다양성을 포괄하는 교회의 성장

신자들은 언어와 출신과 종족과 배경과 신분과 직업의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교회의 성장을 방해할 수 있다. 그리하여 어떤 성장주의자는 문화적인 동질 원리를 강조한다. 그러나 이것은 문화적 단체이지 그리스도의 교회는 아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어느 누구나 문화적 출신에 구애받음 없이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 신앙 안에서 영적으로 하나가 된다. 문화적 다양성은 해소되지 않고 영적인 단일성 안에서 새롭게 풍성한 다양성으로 변화된다. 바울은 자기에게 와서 신자가 된 오네시모의 종의 신분을 철폐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오네시모를 변화된 새로운 형제로서 영적 동질성 안에서 대면하였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종의 구별은 있으나 차별은 없다. 성의 구별은 있으나 차별은 없으며 신분의 구별은 있으나 차별은 있을 수 없다.

7. 결론

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한국교회의 성장 둔화는 정치적으로 민주화가 이루어져서 정치적 사회적으로 사회불안적 요소가 제거됨 그리고 흑자 수출, 해외 수출 규모의 증대에 따른 산업화와 경제건설의 성공, 국민소득의 증대, 생활여건의 현저한 개선 등과 더불어 나타나는 필연적인 현상이기도 하다.

70년대와 80년대 초반 교회성장의 요인으로 작용했던 사회심리적인 불안감과 경제적인 소득 분배의 불평등의 문제, 공동체성과 자기 정체성을 제공했던 사회적 기능적 대체물이 다가오는 90년대 후반에는 더욱더 많아지게 될 것이다. 다가오는 이천년대에는 교회 성장은 그 만큼 둔화될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문화적 변화 속에서 한국교회는 교회성장 둔화라는 어려움과 위기를 창조적 기회로써 전용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 새로운 기회란 한국교회의 성장이 이제 양적 위주의 성장에서 탈피하여 내실적인 성장으로 그 정책을 바꾸는 중요한 계기를 말한다. 지금까지의 성장이 사회적 분위기에 맞추어 나간 목회자 위주의 성장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 목회에 쓰여지는 질적인 역동적 성장의 목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한국교회는 자체적 구조문제와 대사회적 태도문제를 철저히 규명하고 이의 시정을 위하여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바울은 씨를 뿌리고 이불로는 물을 주었으나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 1) "개신교 교세 작년 3% 성장", 「조선일보」 1994년 10월 23일 13면.
- 2) "하북교회 성장 둔화, 교단간 교인 쟁탈로 파행", 「기독교연합신문」, 1994년 10월 2일 5면.
- 3) John N. Vaughan, *The World's 20 Largest Churches*(Grand Rapids : Baker Book House, 1984).
- 4) "개신교 교세 작년 3% 성장", 조선일보 1994년 10월 23일 13면 "한국교회 성장 둔화, 교단간 교인쟁탈로 파행", 「기독교연합신문」, 1994년 10월 2일 5면.
- 5) 이요한, "한국교회는 왜 성장 둔화의 침체에 부딪혔는가", 「월간 목회」, 1992년 10월호, 104쪽.
- 6) 김영재, 한국교회사, 346쪽.
- 7) 김영재, "한국교회 문제점과 그 쇠신에 대한 제언", 「한국기독교와 기독교성인」(김영한 편), 반석출판사, 1987, 28~29쪽.
- 8) "교회 성장 '정체' 사실", 「기독교연합신문」, 1994년 10월 2일 1면.
- 9) 강근환, "한국신학교육의 변천과 오늘의 과제", 「기독교 사상」, 1993년 3월호, 20쪽.
- 10) 조종남 "교역자 양성을 위한 사회교육 개선책", 「목회와 신학」, 1991년 1월호, 43쪽.
- 11) "21개 무인가 신학교 폐쇄명령, 교육부 형사관조치", 「기독교신보」 1992년 2월 29일 11면.
- 12) "무자격 목사 배출 막아야", 「국민일보」, 1994년 10월 29일 28면.
- 13) "정직한 직업인 신부—아나운서—스님—기자 順", 「조선일보」 1993년 6월 26일 22면.
- 14) 「조선일보」 1992년 7월 17일자.
- 15) 민경배, "한국의 기독교와 그 민족교회의 성립", 「한국의 근대화와 기독교」, 숭실대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 1983, 266~273쪽.
- 16) 한완상, "한국교회의 양적성장과 교인들의 가치관", 「한국의 근대화와 기독교」, 숭실대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 1983, 122쪽.
- 17) 이만열, "한말 기독교인의 민족의식 형성과정", 「한국사론 제1집」, 서울 대학교 한국사학회간, 1953년 5월.
- 18) 김영한, "한국기독교의 양적성장에 대한 요인분석 소고", 「한국기독교와 신앙」, 1988, 숭실대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 23~47쪽.
- 19) 라일 살러, "미국은 한국교회의 성장을 배워야 한다", 「월간 목회」, 1992년 2월호 112쪽.
- 20) 노길명, "한국종교의 성장의 사회적 배경", 「한국 교회와 사회」(이원규 편역),

- 도서출판 나단, 1989, 102~105쪽.
- 21) 김영한, “한국 전통사상과 기독교 사상”-부속종교를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논문집」, 인문과학 연구소, 1993, 10~22쪽.
 - 22) 유동식, 「한국종교와 기독교」, 대한기독교서회, 1984, 38쪽.
 - 23) 김영한, “한국기독교의 양적성장에 대한 요인분석 소고”, 「한국기독교의 신앙」, 한국기독교연구논총 5, 숭실대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 1988, 48~52쪽.
 - 24) 이원규, “한국교회 성장운동의 재평가”, 「목회와 신학」, 1990년 2월, 68쪽.
 - 25) 라일 살러, “미국은 한국교회의 성장을 배워야 한다”, 「월간목회」, 1992년 10월, 113쪽.
 - 26) 한완상, “한국교회의 양적성장과 교인들의 가치관”, 상계서, 155쪽.
 - 27) 방선기, “교회성장운동이란 무엇인가?”, 「목회와 신학」, 1990년 2월호, 40~42쪽.
 - 28) 프랜트 킬라프, “작은 시설, 그러나 큰 사역”, 「목회와 신학」, 1990년 2월호, 93쪽.
 - 29) 프랜트 킬라프, “작은 시설, 그러나 큰 사역”, 「목회와 신학」, 1990년 2월호, 83~95쪽.
 - 30) 김선도, “성장하는 교회, 열린목회”, 「목회와 신학」, 1990년 2월호, 45쪽.
 - 31) 김인중, “삶을 나누는 교회가 계속 성장한다”, 「월간목회」, 1992년 10월, 126~134쪽.
 - 32) 김수진, “농촌교회의 문제점”, 「한국기독교와 기독교성인」(김영한 편), 1988, 반석출판사, 183~186쪽.
 - 33) 김영재, 한국교회사, 개혁주의 실행협회, 1992, 344쪽.
 - 34) “대다수 신학교, 정상수준 교육 ‘자격미달’”, 「기독교연합신문」, 1994년 11월 13일 3면.
 - 35) Willem J. Kooimann, *By Faith Alone*, (London: Lutterworth Press, 1954), p. 192.
 - 36) David Watson, *I Believe in the Church*, (Grand Rapids: Eerdmans, 1979), p. 166.
 - 37) 김수진, 상계서, 187쪽.
 - 38) 여기에 개혁신학의 입장에서 현대신학을 비판적으로 조명한 필자의 저서들을 소개한다.
 김영한, 「기독교신앙개설」(형설출판사, 1982, 1992(5판)), 「바르트에서 몰르만까지」(대한기독교회, 1982, 1991(11판)), 「현대신학의 전망」(대한기독교서회, 1984, 1992(5판)).
 「하이데거에서 리퍼프까지」(박영사, 1987, 1990(2판)), 「현대신학과 개혁신학」(대학촌, 1990), 「평화통일과 한국기독교」(풍만, 1990), 「한국기독교 문화신

- 학」(성광문화사, 1992) 「개혁신학이란 무엇인가」(IVP 출판사, 1994).
- 39) 이원규, 상계서, 73~4쪽.
- 40) 김성환, “한국교회의 선교현황과 그 대책”, 총신대 원보, 1988년 8월 27일자.
- 41) 김성환, “한국교회의 선교현황과 그 대책”, 총신대 원보, 1990년 9월 25일자.
- 42) *Asian Outlook*, May-June 1989, p.9, p.18.
- 43) *World Evangelization*, May-June 1988, p.9, p.7.
- 44) 김신국, “선교지향적인 교회만이 부단히 성장한다”, 「월간목회」, 1992년 10월호, 115~125쪽.
- 45) 피터 와그너, “교회성장 운동에 대한 복음주의자들의 견해”, 「목회와 신학」, 1992년 10월 77쪽.